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

21세기를 준비하면서 3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될 한국

오늘의 세계적 상황과 관련하여 “도전”과 “발전”(challenges and developments)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과학, 기업경영, 기술, 새로운 발명, 통신과 뉴스수신 등의 분야에 있어서 변화속도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변화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압박을 가중시키며, 인간생활이 전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생산한다거나, 제품을 조립가공하는 것이 더이상 유용하지 않게 된다는 우려를 야기시킴으로서 일반인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영국 존 메이저 수상은 각각 지난 해 이러한 변화가 몰고 온 국제적 통화교란으로 그들의 국내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도 CNN의 텔레비전이 소말리아의 처절한 기아장면을 보도함으로써 일어난 여론의 압력으로 미국의 소말리아개입을 촉진시켰으며, 또한 투입된 미군들의 처절한 죽음장면을 계속 TV화면에 보여줌으로써 미국정부로 하여금 소말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여론을 자극한 바 있다.

이와같이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어느때 보다도 역사의 변화가 급속한 상황하에 살고 있다. ‘역사는 끝이 났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역사의 힘은 오히려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급속하고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어떤 국가는 그들의 지리적 입지와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다층적 도전으로 특별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이 유럽의 서쪽연안이나 미국의 플로리다 남부 칼리브해 연안에 위치하였다고 상상하여 보자. 아마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같이 한국의 기본적인 조건은 지정학적인 것이며, 그러한 여건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여러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21세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직면하게 될 다층적 도전은 무엇인가? 편의상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즉 단기적 도전, 중기적 도전, 그리고 장기적 세계적 도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이 직면한 단기적 도전은 예측하기 힘든 북한과의 관계이다. 이 방면에 전문가가 아닌 본인의 견해로서는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즉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에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정책에 동감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경이 말한 것처럼 “싸움 보다는 대화”가 좋다. 물론 이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격을 넘볼 수 없을 만큼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라 하겠다.

주변 4강과의 다층적 외교관계 정립이 중요

다음으로 중기적 도전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 세계열강들의 정치적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 열강 즉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대해 조심스럽고 현명한 다층적 외교정책을 펼쳐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소련 및 미국과의 단순한 다자관계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간의 정치적 관계변화는 한국의 정부나 기업에 특별한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중기적 안목에서 이들 4대 열강들의 국내정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도 미국은 예측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경제는 비교적 성장이 완만하다 하더라도 1980년 후반과 비교해 볼 때 금융기관의 도산과 같은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의 외교 및 국방정책은 조심스럽고 상황에 적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의료·교육·직업훈련 등 국내개혁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반면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부시 대통령에 비해 보다 덜 열성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방비를 급격히 삭감하거나, 국제사회의 의무 및 약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와 구소련연방국가들의 변화가 가장 예측하기 힘들다고 본다. 이들 국가들의 큰 변화는 시베리아와 러시아의 극동에 이르기까지 심각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견해로는 그것이 세계시장을 동요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러시아 정부가 새로이 제국주의 노선을 택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혼돈을 더욱 가속화하고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며, 우크라이나나 그밖의 신생독립국가의 반대에 대항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력증강은 1980년대 브레즈네프의 서투른 대외정책이 불러 이르킨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열강의 결속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러시아 정부 내부의 불안과 변화는 걱정거리가 될지언정 한국의 중기적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과거 대한국정책과 역사적 발자취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 및 국방정책의 어떤 변화나, 군사력 증강 및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패권주의의 조짐에 대해서는 항상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일본의 일부 국수주의자들은 때때로 외교, 국방정책을 바꾸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나, 그 때마다 견제되어 왔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견제되리라고 본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안요소이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지속적인 자산가치,

은행자산, 주식가격 등이 하락하고 또한 일본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일본 경제는 상당한 불안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요소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자민당과 정부관료들이 지배적인 구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질서가 새로운 정치질서에 쉽게 대체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지금까지의 대외정책을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앞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국가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거대한 중국의 대부분을 휩쓸고 있는 아주 대대적인 변화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많은 의문만을 제기할 뿐이다. 경제적으로 변영일로에 있는 연안주들과 빈곤과 자원고갈에 시달리는 내륙지방간의 격차, 그리고 경제발전과 정치적 구조간의 괴리가 중국을 두쪽으로 갈라지게 하고 말 것인가?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화되기 전에 인구와 환경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시장기능과 자유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현존의 지도층을 대체하여 경제의 불안을 가져 올 것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정부형태와는 관계없이 중국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군의 지속적 근대화는 금세기 말 아니면 그 후에 중국이 이 지역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 경우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인접 주변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유럽의 CSCE와 같은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협력체제구축은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들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빈곤지역 인구폭발과 富國의 기술발전 가속화

장기적 측면의 세계적 도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본 열강들의 정치 및 외교적 관계보다는 지구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2가지 큰 추세가 존재하는 긴장상태에 관한 것이다.

첫번째 추세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국의 중부지역, 중동, 남미 그리고 기타 세계의 빈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폭발이다. 두번째 추세는 변화의 속도와 근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지역의 지속적 기술발전의 가속화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대한국정책이나 러시아에서 옐친의 후계자가 누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로 진입하고 있는 지구촌은 한편으로는 매년 9천5백만이라는 인구증가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고용구조와 경제성장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 올 새로운 상품제조방법, 교역방식, 농작물재배방식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선진권과 후진권간에는 몇개의 중요한 “인구-기술 균열선”(demographic technological fault line)들이 나타나 있다고 본다. 이 균열선들의 한쪽에는 인구증가율이 정지 또는 감소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유하고 고도의 기술을 지닌 선진국이 자리잡고, 다른 한쪽에는 가난하고 고갈된 자원과 폭발적인 인구증가율 그리고 인구의 대다수가 20세 미만으로 일자리를 찾아 급급해 하며 좀더 부유한 사회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난한 나라가 자리잡고 있어 부유한 나라의 경각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균열선”의 가장 좋은 예로는 가난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아프리카와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남부유럽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단은 북미와 멕시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간에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균열현상은 동아시아에서는 별로 찾아 보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국내에 이러한 균열선이 전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내륙 북부지방은 가난하고 자원은 고갈되었으며 인구가 과밀함에 비하여, 연안지방은 번영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지역간 격차 즉 균열에 대해서 동아시아는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균열선이 커지는 것은 이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똑 같이 중요한 사실은 미국과 유럽인들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의 증가율까지도 감소시킨 지난 30년간의 동아시아의 성공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에 인구의 폭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눈부신 업적을 다른 지역에서도 본 받았으면 한다.

이 글은 『21세기의 준비』와 『강대국의 흥망』 등의 저서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 석학 폴 케네디 교수가 본 연구원 초청으로 내한하여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업무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서비스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 행사 참가비 할인(법인회원은 1구좌당 3인까지 무료)
-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후원회가입 안내문의 : (전화) 551-3334/7
(Fax) 551-3339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서울 무역센터 우체국 사서함 112)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